

미래인문학 인문역량지수

논술형 측정문항

(역사학 영역)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미래인문학 코어사업단

2018년 11월 5일 version 1.0

[질문]

[지문-1]과 [지문-2]를 바탕으로 화폐가 기능하기 위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1]과 [자료-2]의 현상이 발생한 요인을 설명하시오.

[답안 분량]

3,000자 이상 3,500자 이하

[지문-1]

돈은 거의 모든 것을 다른 거의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보편적인 교환 수단이다. 이것은 아마도 돈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일 것이다. 사람들이 항상 돈을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역시 항상 돈을 원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당신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것과 돈을 교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상적인 형태의 돈은 또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을 용이하게 해준다. 돈은 부의 전환과 저장, 이동을 쉽고 값싸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복잡한 상거래망과 역동적 시장이 출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복잡한 상업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떠한 화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화폐가 발달하는 데는 기술적인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순수한 정신적 혁명이었다. 여기에 얽혀 있는 것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상호 주관적 실체였다. 화폐는 주화와 지폐만이 아니다. 화폐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이 기꺼이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하며, 그 목적은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세계 전체의 화폐 총량은 약 60조 달러이지만 주화와 지폐의 총액은 6조 달러 미만이다. 돈의 90퍼센트 이상, 우리 계좌에 나타나는 50조 달러 이상의 액수는 컴퓨터 서버에만 존재한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상거래는 하나의 컴퓨터 파일에 들어 있는 전자 데이터를 다른 파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전자 데이터를 받는 대가로 재화와 용역을 기꺼이 거래하려는 한, 그것은 반짝이는 주화나 뾰뾰한 지폐보다 낫다. 더 가볍고 부피가 더 작고 기록하기도 더 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화폐는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이다. 그것은 물질을 마음으로 전환함으로써 작동하고, 그것이 성공한 것은 집단적 상상을 믿기 때문이다. 신뢰는 온갖 유형의 화폐를 주도하는 데 쓰이는 원자재다. 따라서 화폐란 상호신뢰 시스템의 일종이지만, 인간이 고안한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상호신뢰 시스템이다. 왜 사람들은 화폐를 신뢰할까? 내 이웃들이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이웃들이 그것을 신뢰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맨 처음 화폐의 최초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곡물이나 비단 등의 현물은 내재적 가치는 있었지만 저장하거나 운반이 어려웠고, 금은 그 반대였다. 금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옷을 해 입을 수도 없었다. 농기구나 칼 같은 유용한 도구를 만들기에는 너무 무르다. 금이나 은에 뭔가 쓸모가 있다면 그것은 장신구나 왕관을 비롯한 신분의 상징을 만드는 재료일 때이다.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동일시하는 사치품이다. 즉 그 가치는 순전히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것이다.

일정한 무게의 귀금속은 결국 주화를 탄생시켰다. 리디아 화폐는 표준화된 무게의 금과 은을 섞어 만들어졌고, 주화를 식별하는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표식은 두 가지를 증명했다. 첫째, 해당 주화에 귀금속의 양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알려 주었다. 둘째, 주화를 발행하고 그 내용물과 가치를 보증한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주었다. 사람들은 왕의 권력과 진실성을 신뢰하는 한 그의 주화도 신뢰했다. 훗날 이방인들도 로마 데나리우스 주화의 가치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주화에 그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황제의 권력과 진실성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황제의 권력 또한 데나리우스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주화가 없었다면, 또 로마 주민들만 주화를 신뢰하였다면 방대한 영토를 지닌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

이다. 그러나 만약 은의 공급이 줄어들어 주화를 만들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은의 함량을 줄여 가치가 떨어진 화폐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유통시키게 되면, 황제와 제국의 신용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황제와 제국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상거래의 위축에 그치지 않고 제국의 유지와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빚게 될 것이다.

[지문-2]

기원전 7세기 중반, 오늘날 터키의 서부에 위치했던 리디아 왕국에서 인류 역사상 중요한 발명 중의 하나가 이루어졌다. 지중해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중계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한 리디아 상인들이 편리한 유통수단을 필요로 했기에 왕실에서 최초로 금은화폐를 주조했던 것이다. 사자 등 신성한 동물의 이미지가 찍혔던 이 금은화폐는 그리스와 로마, 그 뒤 중세 유럽 국가가 주조한 화폐의 원조에 해당한다. 일률적 규격의 화폐라는 아이디어는 곧 동서 교역의 중심이었던 인도 서부의 간다라 지역으로 전파되어 그곳에서도 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즉 금은 화폐는 각 지역 사이의 교역에서도 광범하게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구는 중세 이래 근세 초기에 걸쳐 일상적인 거래에 화폐가 계산 단위로 출현하였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신용거래나 실물화폐를 사용하였다. 은화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기에 너무 고액이었고, 각지의 영주가 화폐 주조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지역의 화폐가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서구에서 화폐 자체는 영주와 상인들이 사용하였고, 농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신용거래가 필요하였다. 즉 서구사회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주조화폐의 사용이 매우 절제된 사회였다.

이와 무관하게 고대 중국인들도 춘추전국시대에 칼날이나 농기구날 모양으로 만든 구리 덩어리를 화폐로 쓰기도 했고, 기원전 3세기 중반에는 가운데에 구멍에 난 원형의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제는 휴대하기 편리한 사각형의 구멍을 가진 원형으로 화폐를 통일하여 보급시켰다. 또 기원전 118년부터 한나라에서 유통시킨 오수전이라는 금속화폐는 기원후 621년까지 거의 700년 동안 중국뿐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 열도 등 인접 지역까지 널리 쓰이면서 동아시아의 보편적 지불 수단이 되었다. 금속화폐나 동전은 늘 저울을 가지고 달아야 하는 금괴나 은괴, 그리고 언제 상할지 모르는 곡물이나 운반하기 힘든 포, 비단 등의 현물 화폐보다 사용하기에 훨씬 편리하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주조 동전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 12세기부터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 상거래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13세기 후반 몽골 제국에서는 국가지폐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자 비용이 드는 동전 주조에 구애될 필요가 사라지고 결국 동전은 지폐로 대체되었다. 동전은 본래 무거웠기 때문에 동서 교역과 같은 고액의 원거리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몽골 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은과의 태환이 가능하였으므로 오래 전부터 은본위 제도를 채택해왔던 이슬람권과 공통의 교역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몽골 제국 영향 아래에 있던 유라시아 대부분의 지역이 은을 근간으로 삼는 화폐경제 체제 안에 통합되었다. 그런데 교초는 종이에 찍어내기 때문에 항상 남발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 가치와 신용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크지 않았다.

[자료-1]

지원통행보초: 원의 쿠빌라이가 찍어서 유통시킨 지폐로서, 그 액면 가치는 5문(文)으로부터 2관문(二貫文)에 이르는 11종이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국제화폐로서 기능하였고,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각지에서 국가 간의 거래에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자료-2]

비트코인은 동전이나 지폐와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디지털 통화이다. 정부나 중앙은행 등 중앙집중적 권력의 개입없이 작동하는 화폐로 개인 간 직접 거래하는 분산화된 방식을 도입했다. 아래 자료는 2017~2018년 사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급등락 동향이다.

